

#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역점

## 무주군, 태권도 성지화 완성 위해 당초 구상한 내용 담길 수 있도록 최선

무주군이 향후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를 축으로 한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기 위해 올해도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1차 관문인 사전타당성 용역비 3억 원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올해 정부 주관으로 사전타당성 용역을 척수, 사관학교의 사업비 등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군은 대한태권도협회를 비롯해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등 3개 국내외 태권도 단체 및 정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당초 무주군이 구상한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구상이다.

무주군이 구상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는 1년 과정의 대학원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입학생 300명(해외 280명, 국내 20명)을 모집해 태권도 글로벌 지도자를 육성하는데 정책 목표를 두고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는 올해 사전타당성 용역을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계획안) 무주군 설천면 태권도원 조성지역 내에 설립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전타당

성 용역을 마치면 이를 토대로 기본계획 수립후 최종 확정하게 된다.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가 설립되면 진정한 세계 성지화 완성을 통해 태권도원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우뚝 서고 국가 태권도를 매개로 전 세계로 뻗어가는 문화 강국이 실현되는 효과가 떠오른 전망이다.

한편, 중국의 우수 일본의 가리테 등의 거센 도전을 완전 차단해 태권도의 올림픽 영구 종목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황인홍 군수는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는 무주군의 태권도 성지화 완성을 위한 필수사업이다”며 “국립 대학원대학으로 설립을 위해 예산확보와 관련법 제·개정의 제도 개선 등이 정부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도 적극 대응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은 제20대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되면서 설립을 위한 동력을 얻었다.

/무주=전문선기자



전춘성 진안군수가 2023 계묘년 새해를 맞아 9일~16일까지 군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한 읍·면별 연초 방문에 나선다.(안천면 방문 모습)

## 새해 첫 군민과 소통 행보

### 전춘성 진안군수, 16일까지 11개 읍·면 순회 방문 나서

전춘성 진안군수가 2023 계묘년 새해를 맞아 9일~16일까지 군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한 읍·면별 연초 방문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민선 8기 시작 후 첫 연초방문으로 지난해의 군정 성과와 함께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 군민과 공유해 군정 실현에

업 종사자들의 애로와 의견 청취와 해당 현장 방문, 지역 어르신들의 현안에 대해 듣는 시간을 마련해 만생을 살펴 군민들과 더 깊이 있게 소통하고

과감하게 혁신해 나가기 위한 정책 추진의 기틀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군정의 근간이 되는 군민들의 목소리를 귀를 더 기울이고 소통해 나가면서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 추진에 적극 앞장서겠다”며

“2023년 진안군은 새로운 길을 열어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한다는 개신창래(開新創來)의 마음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역 소식통

### 장수군치매안심센터

#### 찾아가는 치매선별검사실시

장수군치매안심센터(장수군보건의료원장 유봉우)는 60세 이상 장수군민들의 치매조기발견을 위해 2월 초까지 마을로 찾아가는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한다.

치매안심센터는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전문인력 9명이 60여 개의 마을회관을 찾아가 무료로 치매인지선별검사(CIST)를 실시하며, 검사 후에는 치매예방운동(뇌신경체조, 치매예방체조)을 시행하고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한 치매인식개선교육도 진행한다.

또한 치매인지선별검사를 통해 인지저하로 나을 경우 치매안심센터 및 협약병원(전주대자기인병원)을 통해 전문의 진찰과 신경 심리검사, 진단의학검사, 뇌영상 활용 등을 무료 또는 검사비를 지원받아 진행할 수 있다.

유봉우 장수군보건의료원장은 “치매는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중증 상태로의 진행을 억제하거나 증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치매안심센터 사업을 적극 추진해 치매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치매선별검사는 가까운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도 무료로 시행할 수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 설맞이 직거래 장터 개최

진안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11~12일까지 군청 광장에서 진안군 농·특산물 40여개 품목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설맞이 직거래 장터’를 개최한다.

직거래장터는 중간 유통 과정 없이 소비자와 판매자가 직접 연결되는 판매 방식을 취해 생산자에게 유리하고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의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했다.

진안군 설맞이 직거래 장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리며 청정 진안고원에서 생산된 괴일류와 정과, 쌀, 흥삼, 가공품 등 다양한 설맞이 품목으로 구성해 소비자들의 미음을 공략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희망 나누는 행복공동체 무주 실현

###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진행

무주군이 군민행복 실현을 위한 2023 업무계획을 마련하고 실과소별 새해 업무에 돌입했다.

무주군은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군청 대회의실에서 황인홍 군수를 비롯해 유호연 부군수, 국장, 실·과·소장, 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차지행정과를 시작으로 20개 부서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보고회를 통해 군정비전과 군정지표를 반영한 2023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주

진방향과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재원 확보 등 사업별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효과적인 목표달성을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22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부·도 주요 정책을 반영하여 군정성과 제고를 위해 부서별 전략목표를 확정,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무주관광 종합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남대천 주변 경관조성사업 △적상산성 종합정비 △태권시티 관광 인프라 구축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 △고령지스마트팜 경영

실습장 조성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군립요양병원 건립 △농촌마을 통신망 고도화사업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무주군 청년센터 조성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민선8기 공약사업을 비롯해 고향사랑기부제, 청년정책,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정책 등 주요현안 사업시책 수립과 추진에 최선을 다해 인구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2023년도 군정비전인 희망을 나누는 행복공동체 무주 실현에 군의 모든 역량과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23년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통해 확정한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책자로 발간하고 군 홈페이지에도 공개해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기자



빨리 구축돼야 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장정복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2023년에도 장수군의회는 ‘군민과 공감하고 함께하는 상생의회’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제34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개회

장수군의회(의장 장정복)가 202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등을 청취하기 위해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345회 임시회를 열었다.

첫날 본회의에서 장수군의회는 장정복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최한주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남기 의원이

제야의 ‘장수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훈식 군수가 제출한 2023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유경자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관내 분포된 크고 작은 공원시설이 방치되지 않도록 공원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하루



### 진안군의회, ‘군민 소통’ 읍·면 연초방문 동행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가 계묘년 새해 시작과 함께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한 민생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의회에 따르면 9일 안천면을 시작으로 16일 부귀면까지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2023 읍·면 연초방문에 함께 동행하며 주민들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까지 코로나 19로 인해 연초방문이 50명 미만으로 진행됨으로써 군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에는 제약이 많았던 터라 이번 기회를 통해 군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주요현안 및 건의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동행에는 지역구와는 상관없이 모든 의원들이 11개 읍·면을 함께 방문함으로써 ‘현장에 답이 있다’는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강조하는 김민규 의장의 행보에 한층 더

/진안=우태만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